

제 124주년
人日기념



포덕 162(2021)년 12월 24일

천도교중앙총부

제 124주년

人 日 기 념



포덕 162년 12월 24일

천도교중앙총부

< 식 순 >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 전 봉 독(인여물개벽설)
1. 천덕송 합창(기념송1-3)
1. 기 념 사
1. 포 상
1. 천덕송 합창(인일기념가1-3)
1. 심 고
1. 폐 식

[식후행사]

※ 천도교중앙대교당 건립 100주년 기념행사

- 기념비 제막 / 타임캡슐 매설 등

기 념 사

전국의 동덕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춥고 코로나 19까지 극성을 부리는 겨울에 동덕 여러분 모두가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수도수련에 더욱 정성을 다해주시기를 심고합니다.

오늘은 의암성사께서 해월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아 제3세 교조가 되신지 124주년이 되는 인일기념일입니다.

의암성사께서는 동학혁명 이후 위기에 처한 교단을 기사회생시키고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조국독립을 위해 일신을 불태워 헌신하신 불세출의 영웅이요 위인입니다. 우리 전체 교인은 오늘 인일기념일을 맞아 의암성사께서 보여주신 백절불굴의 호국호도(護國護道)정신을 귀감으로 삼아 몸과 마음을 다하여 교단중흥과 국가민족을 위해 헌신할 것을 굳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동덕 여러분!

의암성사께서는 포덕 2년에 청주군 대주리에서 탄생 하셨습니다. 호방한 기질을 타고난 의암성사였으나 당시 반상(班常)의 차별화된 신분사회에서 서자로 태어난 을 분을 가눌길 없어 낭인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손천민(孫天民)이 동학에 들기를 권유했을 때 삼재팔난이 일어나 이 세상이 망해야 한다면서 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학이 보국안민하는 대도임을 알게 된 의암성사는 포덕 23년에 입도하신 후 지난 생활을 청산하고 매일 3만독의 주문을 외우면서 성력을 다하여 수련에 임하였습니다.

그 후 해월신사의 훈도를 받아 수제자가 된 의암성사는 보은척왜양운동 당시 충의대접주(忠義大接主)로 참가한데 이어 갑오동학혁명 때 북접통령이 되어 전봉준 장군과 함께 반침략의 기치 아래 공주 우금치전투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일본군의 개입으로 동학혁명이 좌절된 후 의암성사는 해월신사를 모시고 고난의 피신 생활을 하는 가운데 원주 치악산 기슭에 있는 수레너미의 초가삼간에 은거하였습니다. 해월신사는 이곳에서 포덕 37년 1월에 손병희·김연국·손천민에게 각각 의암(義菴)·구암(龜菴)·송암(松菴)이라는 도호를 내리면서 3인 공동명의로 교인들에게 경통(敬通)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3인 집단지도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월신사는 교단 지도부가 추적당하는 상황에서 만약 누구 한 사람이 체포되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타 지도자가 종통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려는 사려깊은 조치였습니다.

그 후 포덕 38년 8월에 여주군 선거론으로 거처를 옮긴 해월신사는 노환으로 더 이상 피신할 여력조차 없게 되자 12월 24일 의암·구암·송암 3인을 불러놓고 의암성사에게 도통을 전수하였습니다.

다음해 해월신사가 원주에서 체포되어 순도하자 순천민이 스승님을 따라 함께 순도하자고 하였을 때 의암성사는“말은 비록 옳으나 이것은 한 열사(烈士)의 할 일이요 대도의 책임을 진 자의 할 말이 아니니 나는 오히려 살아서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코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포덕 41년 5월에 해월신사의 묘소를 여주의 천덕산으로 이장한 후 7월 20일에 풍기에서 교단의 핵심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대중주의식(大宗主義式)을 거행함으로써 제3세 교조로서의 종통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에 의암성사는 종법수호를 위해 필경에는 일본에 망명하는 등 초인적인 정성을 다한 결과 해월신사께서 순도하실 때 “앞으로 10년 후 장안에 주문소리가 진동하리라”고 예언한 그대로 10년도 못되어 천도교를 3백만 대중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시천주 주문소리가 서울 한복판에서 크게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살아서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의암성사는

은도시대의 동학을 현도시켜 천도교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오늘 우리 후학들은 조선조 말엽 정부의 탄압과 일제 강점기의 억압 속에서도 천명(天命)을 수행하기 위하여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고 용수철처럼 일어섰던 의암 성사의 불굴의 투혼을 오늘 다시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동학혼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대신사께서 은적암에 계실 때 선국사(善國寺) 주지 송월당(松月堂)과의 문답에서 “사자는 힘이 강하고 개는 힘은 약하므로 살아 있을 때는 사자가 무섭지만 죽게 되면 사자와 개가 마찬가지로 진리 또한 그와 같아서 그 시대 사람에게 생혼(生魂)을 넣어 줄 수 없고 그 시대에 맞는 정신을 살릴 수 없게 되면 그것은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흔이 빠지고 넋이 나간 집단이나 개인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해월신사와 의암성사께서 은도시대의 극한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학혼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암성사는 강시(降詩)에서 “천지와 해와 달이 가슴 속에 들어오니 천지가 큰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이 큰 것이라, 군자의 말과 행동은 천지를 움직이나니 천지조화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니라”고 읊으셨습니다. 이러한 호기(豪氣)와 신념이 살아 있었기에 동학을 기사회생시켜 천도교로 우뚝 서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교육·문화·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공로를 남겼고, 나아가 3·1독립운동이라는 역사적 장거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적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용시용활(用時用活) 법설에서

“시대와 짝하여 나아가지 못하면 죽은 물건과 다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운시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고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의 숙원인 교회중흥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해월신사께서는 “정성이 있는 사람은 돌을 굴러 산에 오르기도 쉽거니와 정성이 없는 사람은 돌을 굴러 산에서 내려오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한울님은 반드시 감응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의암성사께서 3·1운동 당시 국권회복을 지향해서 건립한 중앙대교당 건립100주년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천도교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타임캡슐 매설행사를 거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들 스스로가 동학혼을 불러일으켜 미래지향적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미진하고 서
운했던 일들은 이 해와 더불어 모두 흘려보내고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심고하면서 이만 기념사에 대합니
다. 감사합니다.

포덕 162년 12월 24일

교 령 송 범 두 심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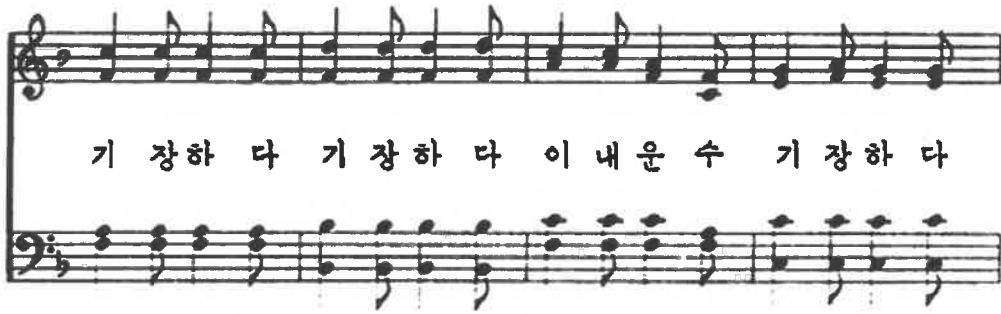
제13장 기념 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지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지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닷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제30장 인일기념가

오 늘 인 일 기 념 의 날 인 일 - 기 념 의 날

천 도 승 통 의 사 - 명 성 사 에 게 내 리 시 니

아 동 방 하 늘 영 롱 히 개 이 어 후 - 천 - 개 벽 에

현 - 도 의 이 아 침 이 르 도 다

창생들아 다같이 이 - 날 을 즐 기 세 성 사 의

높 으 신 덕 길 이 빛 날 이 아 침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hymn.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Each system has a vocal line (treble clef) and a piano accompaniment line (bass clef). The lyrics are in Korean. The first system's lyrics are '창생들아 다같이 이 - 날 을 즐 기 세 성 사 의' and the second system's lyrics are '높 으 신 덕 길 이 빛 날 이 아 침'.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steady bass line with chords and some melodic movement in the right hand.

人與物開關說(인여물개벽설)

개벽이란 한울이 떨어지고 땅이 꺼져서 혼돈한 한 덩어리로 모였다가 자축 두 조각으로 나뉘임을 의미함인가. 아니다.

개벽이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함을 말함이니, 천지 만물의 개벽은 공기로써 하고 인생 만사의 개벽은 정신으로써 하나니, 너의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이니라. 지금에 그대들은 가히 하지 못할 일을 생각지 말고 먼저 각자가 본래 있는 정신을 개벽하면, 만사의 개벽은 그 다음 차례의 일이니라.

그러나 정신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스스로 높은 체하는 마음을 모실 시자로 개벽하고, 스스로 높은 체하는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정할 정자로 개벽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아득하고 망녕된 생각을 알 지 자로 개벽하고, 아득하고 망녕된 생각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개벽하라.

「천하 일만 생각이 전혀 한 몸에 있으니, 앞의 물결이 겨우 쉬면 뒤의 물결이 일어난다」 는 이 생각이 어느 때에 없어질 것이냐. 이것을 끊으려고 불가능의 심력을 공연히 허비치 말고, 다만 「내 속에 어떤 내가 있어 굴신동정하는 것을 가르치고 시키는가」 하는 생각을 일마다 생각하여 오래도록 습성을 지니면, 성품과 몸 두 가지에 어느 것이 주체요 어느 것이 객체인 것과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니, 이 깨달음이 곧 육신을 개벽하는 것이니라.

이 생각을 한번 개혁하면, 이에 회고 흰 얼음과 눈의 깨끗함과 한울이 개이고 날이 밝은 광명과 산이 높고 물의 흐름이 방정함과 뜻이 크고 뛰어난 운학의 고상한 그것이 곧 참된 정신의 나이니, 이 나는 한울이 기울어지고 땅이 터지더라도 길이 이와 같을 것이요, 바다가 마르고 돌이 녹아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라. 이 미욱하고 미욱한 세계를 돌아보고 개혁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오. 우리 대신사를 보라. 이러한 사람이 아니신가.

천지의 기수로 보면 지금은 일년의 가을이요, 하루의 저녁때와 같은 세계라. 물질의 복잡한 것과 공기의 부패한 것이 그 극도에 이르렀으니,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사람어들 어찌 홀로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큰 시기가 한번 바뀔 때가 눈 앞에 닥쳤도다.

무섭게 죽이는 가을 바람이 쌀쌀하고 쓸쓸하게 서쪽으로부터 동쪽에 불어오니, 우거졌던 푸른 초목이 아무리 현재의 모양을 아직 보존하고 있지마는 하루 밤 지나면 산에 가득차 누렇게 떨어지는 가련한 서리맞은 잎 뿐이리니, 이제 이 유형의 개혁을 당하여 정신상으로 무형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천하로 옷을 입고 우주로 집을 삼고 사해로 밭을 가는 그 사람이라도 「한번 가지에서 떨어지면 문득 적막한 서리맞은 잎」 과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이 사람과 물건이 개혁하는 때이니라.

의암성사 약전(略傳)

의암성사(義菴聖師)의 이름은 손병희(孫秉熙)이다. 의암성사는 포덕 2년(1861) 충청북도 청원에서 태어나서 동학이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새로운 세상인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종교적인 목적을 지닌 도라는 말을 듣고는 포덕 23년(1882)에 입도하셨다.

입도 이후 의암성사는 호방했던 과거 생활을 청산하고, 주문 21자를 매일 3만 독(讀)씩 읽고 외우며 지극한 수련에 임하셨다. 또 주문을 읽는 틈틈이 매일 짚신을 두 켤레씩을 삼아 5일마다 열리는 청주장에 나가 팔아 호구지책을 삼았다. 이와 같은 생활을 3년간이나 계속하며 도의 기본을 이룬 이후에는 해월신사를 모시고 공주 가섭사(伽葉寺), 익산 사자암(獅子庵), 풍천 용문사 등에서 독공(篤工) 수련을 계속하시었다. 이러한 지극한 종교적인 수행은 평생에 걸친 의암성사의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동학혁명 당시 의암성사는 동학군의 통령(統領)으로 진두지휘를 하며 전봉준과 함께 공주 우금치전투 등에서 큰 활약하시었다. 이후 해월신사를 모시고 관의 추적을 피해 원주, 여주 등지를 전전하시던 중 37세가 되던 포덕 38(1897)년 12월 24일 해월신사로부터 도통(道統)을 전수받고 천도교의 3세 교조가 되시었다.

종통을 이어받은 의암성사는 교단을 재수습하는 한편 세계정세를 살피기 위하여 일본에 머물면서 여러 지사(志士)들과 국사를 의논하고 또 교인 수습책을 강구하셨다. 이때에 의암성사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깊이 절감하고 교인 청년 중 우수한 인재를 뽑아 일본에 유학을 시키는 등 꾸준하게 재기를 위한 준비를 하셨다.

포덕 45년(1904)에 러일전쟁이 발발할 기미가 보이자 진보회(進步會)를 조직, 교인들을 규합하는 한편, 이해 8월에 전국의 동학 도인으로 하여금 일제히 머리를 깎고 옷을 간편하게 하는(斷髮黑衣) 등 신문화 운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기우는 국운(國運)을 혁신하고

자 갑진 개혁과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마침내 포덕 46년(1905)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온 천하에 선포하였다. 이로써 동학은 은도(隱道) 시대를 벗어나 현도(顯道) 시대를 맞이하였다. 의암성사는 포덕 47년(1906) 1월 귀국하여 천도교 중앙총부를 서울에 설치하고, 또 각 군에 교구를 설치하여 근대적 종교 체계를 갖추어 새로운 출발을 전개하였다.

포덕 51년(1910) 일제의 강점으로 우리나라는 식민지시기에 들어선다. 의암성사는 우이동에 봉황각(鳳凰閣)을 짓고 전국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일곱 번에 걸쳐 이신환성(以身換性)의 법설과 함께 49일 수련을 실시하여 신앙통일, 규모일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수련은 곧 정신력의 단결과 조직의 강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뒷날 일어나게 되는 3·1 독립운동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의암성사는 이미 10년 가까운 기간을 3·1 독립운동을 위하여 그 준비를 하셨다. 그리하여 포덕 60년(1919) 1월 5일을 기해 전국 교인들에게 일제히 49일 특별기도를 명하여 3·1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정신무장을 시킨 후 3월 1일 거족적인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3·1 독립운동 이후 일제에 의하여 구금된 의암성사는 옥중에서 고문으로 병환을 얻게 되어 이후 병보석으로 출감하였으나 그 병세가 악화되어 포덕 63년(1922) 상춘원(常春園)에서 환원(還元)하셨다. 수운대신사, 해월신사와 마찬가지로 의암성사 역시 억압받는 민중과 민족을 위하여 혼신의 정성과 힘을 다하다가 장엄하게 순도(殉道)하신 것이다. 향년 62세이셨다.

의암성사께서는<무체법경><후경>(1,2)<십삼관법><각세진경><명심장><천도태원경><대종정의><수수명실록><명리전><삼전론><이신환성설>(1,2)<성령출세설><법문><무하설><인어물개벽설><입진경><우후청산><아지정신><삼화일목><권도문><강론경의><위생보호장><천도교와 신종교><신앙통일과 규모일치><원자분자설><몽중문답가><무하사><강서><시문><기타시문><기타> 등의 법설을 남기셨다.



천도교중앙총부

우)031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번지(경운동88)

www.chondogyo.or.kr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